



밤의 빛 속 막달레나(부분)
조르주 드 라 투르
(Georges de La Tour, 1593-1652)
1642-1644, 캔버스에 유채,
128x94cm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 파리

〈부활 감사송 1: 파스카의 신비〉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 밤(날, 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주님 부활 대축일

파스카 성야 미사

제 1 부 성야의 장엄한 시작, 빛의 예식
(불 축복과 파스카 초의 마련, 행렬, 파스카 찬송)

제 2 부 말씀 전례

제1독서 | 창세 1,1-2,2<또는 1,1.26-31>

화답송 | 시편 104(103),1-2 & 5-6.10과 12.13-14 & 24와 35 & (© 30 참조)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제2독서 | 창세 22,1-18<또는 22,1-2 & 9.10-13.15-18>

화답송 | 시편 16(15),5와 8.9-10.11(© 1)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제3독서 | 탈출 14,15-15,1 &

화답송 | 탈출 15,1 & 2 & 3-4.5-6.17-18(© 1 & 2)

◎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제4독서 | 이사 54,5-14

화답송 | 시편 30(29),2와 4.5-6.11-12 & 13 & (© 2 & 3 참조)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제5독서 | 이사 55,1-11

화답송 | 이사 12,2-3.4 & 5-6(© 3)

◎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제6독서 | 바룩 3,9-15.32-4,4

화답송 | 시편 19(18),8.9.10.11(© 요한 6,68 &)

◎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제7독서 | 에제 36,16-17 & 18-28

화답송 | 시편 42(41),3.5 & 1 & 2 & 43(42),3.4(© 42(41),2)

◎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서 간 | 로마 6,3-11

복음환호송 | 시편 118(117),1-2.16-17.22-23

◎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24,1-12

제 3 부 세례 전례

(성인 호칭 기도, 세례수 축복, 물 축복, 세례 서약 갱신)

제 4 부 성찬 전례

영성체송 | 1코린 5,7-8 참조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주님 부활 대축일

낮미사

입당송 | 시편 139(138),18.5-6 참조

제1독서 | 사도 10,34 & 37 & 43

화답송 | 시편 118(117),1-2.16-17.22-23(© 24)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또는 ◎ 알렐루야.)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 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제2독서 | 콜로 3,1-4<또는 1코린 5,6 & 8>

부속가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군게	민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복음환호송 | 1코린 5,7.8 참조

◎ 알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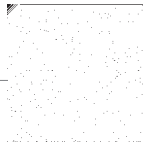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

복 음 | 요한 20,1-9

<또는 루카 24,1-12 또는 저녁 미사에서는 루카 24,13-35>

영성체송 | 1코린 5,7-8 참조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간 첫날 이른 아침, 빈 무덤에서 열린 희망



최광희 마태오 신부 | 문화홍보국장

다시금 찾아온 부활의 때를 맞아, 과연 이 시간들을 보내며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뵈었는가 자문해 봅니다. 생생한 부활의 기쁨과는 다소 떨어진 듯한 고민과 아쉬움이 떠오르는 우리에게, 오늘 복음은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그 길을 밝혀줍니다.

오늘 복음서가 전하는 부활의 첫 장면은, 찬란함보다는 조용하고 낮은 가운데 펼쳐집니다. 부활을 전하는 이야기는 “주간 첫날 이른 아침” 무덤을 찾은 여인들의 이야기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른 아침’이라는 표현은 매우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이 순간은 어느 때보다도 어둠이 깊지만, 빛이 드리우기 시작하는 희망을 기다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신앙도 아직은 ‘새벽’에 머물고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과 의심,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아슬아슬한 새벽 말입니다.

그 새벽, 사도도 아닌 여인들이 먼저 무덤을 찾았다는 사실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그들은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을 어떻게 옮길지조차 크게 걱정하지 않은 채 나아갔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들을 움직인 것은 단 하나,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참된 신앙은 결국 주님께 대한 집중이며, 그 집중은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또한 이들이 놀란 것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러졌

다는 점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먼저 그 큰 돌이 치워진 데 놀랐을 법도 하지만, 복음 속 여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빼앗긴 것은 주님의 시신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한 부활의 첫 징표는 화려한 기적이거나 감각적인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 곧 끝이라 여겼던 인간적 판단의 증거가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빈 무덤의 의미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 만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의 ‘빈 무덤’을 마주해야 함을 되새기게 됩니다. 마음 가득 들어찬 내 생각, 감정, 계획들을 내려놓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머무실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번 부활 시기에는 내 안에 한 칸씩 빈자리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이웃에 대한 여러 부정적인 감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조용히 십자가에 맡겨 봅니다. 그렇게 비워진 마음으로 다시금 내 곁에 있는 이들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그들의 모습은 전과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시는 모습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의 일상 안에서 조용히 찾아오시는 주님. 그분을 알아보고, 기쁘게 맞아들이는 부활 시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빛

성화 해설

라 투르가 그린 막달레나는 오른손을 해골에 얹고 촛불을 보며 묵상하는 모습입니다. 책상에는 성경이 놓여있고 십자가 위에 채찍이 올려져 있습니다. 해골은 인간의 죽음을, 십자가와 채찍은 수난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말씀(성경)은 인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촛불이 모든 것을 비춥니다. 막달레나는 죽음과 고통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빛을 봅니다. 그녀는 예수님 죽음의 목격자이며 부활의 증거자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밝힙니다.

오주열 안드레아 신부 | 삼양동(선교)성당 주임

하루하루의 기도



노정희 안나 | 마천동성당 사목협의회 재정분과장

저는 오늘도 아이가 전화를 끊으며 “엄마, 사랑해.”라고 하는 말에 가슴 한켠이 찡합니다. 아마도 이 평범한 일상이 한때는 꿈꾸지 못한 순간이었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25주 2일 680g. 저희 둘째 아이가 태어난 순간의 기록입니다.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아주 일찍 그리고 아주 작게 태어났습니다. 처음 아이를 만났던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이는 정말 작았습니다. 손발이 제 손가락 한 마디 정도밖에 안 되었으니까요. 인큐베이터 안의 그 작디작은 아이는 온몸이 멍든 상태였고, 작은 손발에 주삿바늘을 꽂은 채로 주렁주렁 많은 약을 달고 고통스럽게 누워 있었습니다. 주어진 면회 시간은 30분, 그 시간 내내 그저 주저앉아 울기만 했던 것이 아이와 첫 만남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는 것 말고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좋지 않았고 저는 그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이가 아픈 게 제 탓 같아서 미안했고, 아이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저를 더욱더 힘들게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었는데, 그때는 감히 살려달라는 기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부족한 기도의 내용은 그저 오늘 하루만 아이를 지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고통이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덜하길 청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갔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에 괴로워하던 얼굴만 보여주던 아이가 2주가 지나 미소를 지어 주었고, 50일 때는 처음으로 그 작은 손을 잡을 수 있게 될만큼 조금씩이지만 분명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미숙아 망막증부터 탈장, 뇌출혈 등 이른둥이들에게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을 많이 겪긴 했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하루하루, 천천히 모든 것들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106일이 지난 날, 680g이었던 몸무게는 2,472g이 되었고 비로소

아이는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살아서 집에 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하루가 쌓여 아이는 올해 11번째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당시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잘 자라주었습니다. 성당에서는 제법 의젓하게 복사도 서고 전례 봉사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방문했던 안과에서 이제는 오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또 하나의 기적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좀처럼 올라가지 않던 시력이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기도의 힘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도 부족한 저의 기도, 그리고 주위의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신 간절한 기도가 모여 기적을 만들어 냈다고 믿습니다.

아직 모든 치료가 끝난 것이 아니기에 지금도 가끔 아이가 정말 잘 자랄 수 있을지 걱정과 불안이 몰려올 때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하느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기에 저는 오늘도 아이를 지켜주시길 청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장래의 우리 부활이
어떠할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 성 클레멘스 1세 교황님

한컷 묵상



김현진 글라라 | 작가

왜 이럴까?



최남식 베드로 신부 | 살레시오회(살레시오청소년센터)

청소년들에게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니?” 하고 물으면 보통 가족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들이 가족보다 또래 친구들을 더 좋아할 것이라고 단정 짓곤 합니다. 그들이 가족보다는 또래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학교에 입학한 청소년들이 가족들보다는 또래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보통 아침 8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만나고 그 이후 시간에는 방과 후 수업을 하거나 다양한 학원에 다니다가 밤 10시 이후에나 집에 돌아오니까요.

자연히 가족과 함께 대화를 나누거나 식사를 함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부모와 대화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청소년기 아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속내를 나누고 싶어 하고, 관심받고 싶어 합니다. 청소년기 아이들이 ‘왜 이럴까?’ 생각해 보면, 몸은 이차 성장으로 자랐지만, 마음은 아직 어린아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의 아이들은 이런 자신의 미성숙한 모습을 감추려고 더 강하게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린아이처럼 한없이 연약한 모습으

로 눈물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 스스로도 자신의 감정의 기복 앞에 “왜 이럴까?” 의아해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이런 특성을 감안하여 청소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여전히 청소년에게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답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활을 받아들이기 위해 반드시 수난과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과 부모님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부모들도 서로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 인내로운 숙고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인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잘 다룰 수 있을 때까지, 부모님이 인내로 곁에 머물러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표현 그대로 아이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경험할 때까지 부모님들이 참고 견디며 ‘버텨주기(Holding)’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춘기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는 ‘담아내기(Containing)’를 배웁니다. 버텨주며 담아낼 때까지 기다리는 이 과정이야말로 누군가의 고통에 동반하는 것이며, 부활을 맞이할 때까지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우리 신앙인의 삶과도 닮아 있습니다. 긴 숙고의 시간을 통해 부모님과 청소년들 모두 각자의 마음을 새롭게 경험하며 부활을 체험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요한 20,21)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기쁨이 온 세상 모든 이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특별히 분쟁과 전쟁으로 불의와 억압, 분열과 소외의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참 평화와 위로가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2025년 ‘희망의 순례자’ 희년에 주님의 부활을 맞이했습니다. 이 희년에 맞이하는 부활은 더욱 큰 기쁨과 깊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며 특히 희망에 관하여 묵상하게 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요란한 사건으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만인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 화려하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식의 부활 발현 이야기는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그저 ‘빈 무덤’의 표상을 통해서, 실패의 좌절과 슬픔 속에 주저앉아 있는 이들 곁에 조용히 다가오십니다. 그것은 온유한 승리이며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치유를 선사하는 구원의 신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이별과 상실의 슬픔 속에 울고 있는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그 이름을 불러주시며 당신 현존을 드러내십니다.(요한 20,11-18 참조) 이렇듯, 지금 삶의 온갖 시련으로 아파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옆에 부

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조용히 현존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떠나보낸 실망 속에 침통한 마음으로 엠마오를 향해 가던 제자들의 마음을 당신 말씀으로 뜨겁게 타오르게 해주십니다.(루카 24,13-35 참조) 이렇게,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서는 인생 여정에서 온갖 실패와 실망을 겪으며 힘겹게 걸어가는 우리 곁에서 함께 걸으십니다. 또한 말씀과 성찬의 나눔을 통해 우리의 닫혔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벅차오르게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숨어서 문을 잠그고 무서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다가와 평화의 인사를 전해줍니다.(요한 20,19-23 참조) 또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어부들에게 나타나시어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요한 21,1-14 참조) 이는, 그분께서 사회 안의 여러 분열과 갈등의 긴장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참 평화를 선사하시고, 불안과 불신의 밤을 지새우며 헛수고에 지쳐버린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힘을 주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군사적 갈등과 긴장 속에서 분쟁과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는 세상을 보며, 또 빈곤과 질병의 세계적 고통과 전 지구적인 극심한 기후 위기, 그리고 사회 공동체의 분열과 경제적 위기를 겪으면서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과연 어디에 계시느냐고 말합니다. 그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왜 세상의 어둠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시련 속의 우리 곁에 신비로이 현존하신다는 믿음과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현실적인 고통을 당장에 없애주거나 마술 같은 모습으로 해결책을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의 신비를 지금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인류의 고통과 함께하시며 이 세상을 구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로마 5,3-4)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체험하는 것은 바로 희망을 통해서입니다. 시련 속의 인내와 수양을 통해서 우리는 이 희망을 다져갑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희망입니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로마 8,24-25)

최근 우리 사회는 희망이 위협받는 듯한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계엄 선포로 시작된 깊은 혼돈과 정치적 혼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선언,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선고의 과정을 이어가면서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도 통합보다는 정파적 갈등과 상호 비난이 계속되며 분열의 고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국민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고통 속에서도 선명한 시민의식으로 연대를 통해 희망을 일궈 나가는 여정에 한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어둠을 넘어서는 희망과 확신입니다.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단순히 정치적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진정으

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의 어려움은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희망을 품고 확신 속에 연대한다면, 이 난관 또한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희망의 위대함에 새롭게 눈떠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기대와 희망,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강한 확신, 그래서 현실의 불의와 질곡을 뛰어넘는 위대한 복음의 비전, 곧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는 지금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실망케 하고 좌절시키는 여러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2025년 정기 회년 선포 칙서의 제목처럼, 결코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로마 5,5) 오늘의 부활 체험은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삶의 기대와 희망을 상실한 이들에게, 또 삶의 참다운 가치가 실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는 이 희망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하느님의 약속을 향해 온 인류가 ‘함께 걸어가는 길’(시노드)에서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회년 동안, 우리는 인류의 여정에서 희망의 용감한 증인, 곧 하느님 자비의 선포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부활의 신비를 전하는 “여러분을 믿음에서 얻는 모든 기쁨과 평화로 채워 주시어, 여러분의 희망이 성령의 힘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로마 15,13)

바다의 별이신 성모님께서 힘든 풍랑을 헤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 전구해 주시기를 청하며, 주님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평양교구장 서리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정순택

오늘(4월 20일)은 '주님 부활 대축일'입니다.

'주님 부활 대축일' 다음 날인 4월 21일(월)은 교구청 각 기관 휴무입니다.

오늘(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cc.catholic.or.kr)-교회 메시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톨릭평화방송 주님 부활 대축일 생중계

명동대성당 미사	TV · 라디오 · cpbc플러스 · 유튜브 4월 20일(주일) 12시
바티칸 미사	TV · cpbc플러스 · 유튜브 4월 20일(주일) 17시 20분(재방송 22시40분)

4월 27일(부활 제2주일)은 '하느님의 자비주일'입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40년 4월 23일 백남희 베드로 신부(53세)
- 1986년 4월 23일 임종국 바오로 신부(80세)
- 1993년 4월 27일 김정수 레오 신부(60세)
- 2008년 4월 21일 류영도 디오니시오 신부(83세)
- 2008년 4월 24일 김택구 루도비코 신부(72세)
- 2017년 4월 27일 홍문택 베르나르도 신부(64세)
- 2021년 4월 27일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90세)

서울주보 알림 게재 신청은 서울주보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에서만 받습니다.

교구청 알림

가톨릭학생회(KYCS) 회원 모집

대상: 중고등학교 학생

문의: 02)742-4151 청소년국 학교사목부

제5차 성경 특강과 함께하는 튀르키예-그리스 성지순례

때: 6월 30일~7월 11일(11박12일) / 지도: 전영준 신부

주관: 성서못자리 / 문의: 010-6734-0190 심 소화

테레사(문자 또는 카카오톡 문의)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CCM 생활성가 코드 반주법

때, 곳: 5월 12일~6월 30일 매주(월) 19시30분~21시30분(2시간, 중립동 최양업홀

강사: 김상균 / 등록기간: 4월 21일(월)~5월 2일(금)

문의: 02)393-2213~5

제29회 가톨릭 '교회와 세상' 강연회

대상: 사회교리학교 졸업생, 관심 있는 신자

주제: '우리 모두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위해'

때, 곳: 4월 28일(월) 14시, 가톨릭회관 205-2호(명동)

문의: 02)727-2249, 2431 정의평화위원회

홈페이지: https://catholicjp.or.kr

한국교회사연구소 성지순례

때, 곳: 5월 21일(수) 9시, 서울순례길 3코스 '일치의 길'(40명) / 코스: 새남터(출발)~(한강변 5.3km)-절두산-양화진외국인묘원

집결장소: 새남터성지 / 회비: 9천원(중식비)

계좌: 국민은행 844402-04-171823 천강우(교회사동인회)

문의: 010-8757-7639 정신영

(2025/봄)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 문의: 02)727-2047

4월 7일부터 홈페이지(http://culture.catholic.or.kr) 접수

말씀 정원 책자 만들기(원데이)	4월 25일(금) 14시~16시
레진으로 세례명 봉은 소품 만들기(원데이)	4월 30일(수) 14시~17시 · 19시~21시
우드버닝 미니 트레이(원데이)	4월 30일(수) 14시~17시 · 19시~21시
쓰담쓰담, 그림책으로 내 마음 돌보기	5월 9일~6월 13일 매주(금) 13시30분~15시
신앙, 인문학을 만나다 - 성경	5월 15일~6월 19일 매주(목) 19시30분~21시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박시준 개인전: 1전시실

이콘연구소 제18회 회원전: 2, 3전시실

전시일정: 4월 25일(금)~5월 4일(주일)

2025 토요 성모신심과 20단 묵주기도

대상: 누구나(회비 없음) / 강의: 조창수 신부

내용: 참된 신심

때, 곳: 매주(토) 14시~16시, 가톨릭회관 205-2

유럽 성모성지 순례피장: 8월 13일~23일(매주 지도:조창수 신부)

문의: 010-8889-5425(문자) 가톨릭 성경&영성 아카데미

2025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명동 부활축제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가난한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명동 부활축제'가 열립니다 / 신자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내용: 생명존중 및 인식개선 캠페인, 장애인작가 작품 전시, 사회복지회 나눔 마켓 등 / 문의: 02)727-2437

때, 곳: 4월 20일(주일) 9시~16시, 명동대성당 야외마당

병원사목위원회 후원회 미사 안내

병원사목위원회 후원회원들을 위한 미사가 5월 9일(금) 오후 3시, 교구청별관 6층 경당에서 있습니다 /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이 되어주신 분들께는 선물을 보내드리오니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문의: 02)727-2073(www.hospitalpastoralcommittee.co.kr)

병원사목위원회 후원회 미사 안내

병원사목위원회 후원회원들을 위한 미사가 5월 9일(금) 오후 3시, 교구청별관 6층 경당에서 있습니다 /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이 되어주신 분들께는 선물을 보내드리오니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문의: 02)727-2073(www.hospitalpastoralcommittee.co.kr)

2025 '가톨릭 50+ 성경 봉독 학교' 교육생 모집

내용: 전례 독서 및 성경 봉독, 스피치 교육

대상: 50세 이상의 가톨릭 신자(선착순 마감)

때: 5월 13일(화)~6월 24일(화) 14시~15시30분(총6주)

곳: 교구청별관 523호 / 회비: 7만원

신청기간: 4월 30일(수)까지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사목국 노인사목

팀 홈페이지 교육신청 게시판 접수

문의: 02)727-2385, 6 / 자세한 내용은 사목국 노인

사목팀 홈페이지 참조

제54회 가톨릭 에코포럼

때, 곳: 4월 23일(수) 19시~2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대상: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신자, 신학생, 수도자, 성직자

제목: 회칙 <찬미받으소서> 반포 10주년을 지내며

강사: 발제1 문점숙 수녀(노틀담수녀회), 발제2 하

유경(한국CLC) / 신청방법: 홈페이지(http://eco.catholic.or.kr) 및 전화 접수(02-727-2278, 2283)

직장사목팀 AESTUS 성가대 단원 모집

음악을 좋아하며 특히 성가를 통해 기도하실 분 환영합니다 / 대상: 가톨릭(예비자 포함) 신자로 성가대

경험이 있거나 성음악에 관심 있으신 20~40대 직

장인(사립자 가능)

시간: 매주(금) 19시30분~21시, 명동대성당 내 문

화관 2층 소성당 / 문의: 010-5104-5644

1박 2일 성지순례 접수 안내

때: 5월 16일(금)~17일(토)

곳: 광주대교구 및 전주교구 순례지

신청: 4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검색창 '순교자현양위원회')에서 선착순 접수

회비: 24만원 /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민족화해위원회

1) 1462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4월 22일(화) 19시, 명동대성당

금주의 '내 마음의 복녘본당': 서울교구(북녘지역) 서

흥 본당 / 문의: 02)727-2420

2) 후원회 미사 / 문의: 02)727-2415

때, 곳: 4월 25일(금)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대상: 후원회원 및 누구나

전례학교

대상: 전례봉사자, 전례분과위원

때, 곳: 5월 14일~6월 11일(수) 14시~16시, 가톨릭

회관 3층 강당(5주)

회비: 4만원(선착순 200명 / 5월 7일 접수마감)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문의: 02)727-2066 사목국 교육지원팀

인준단체 알림

모임

혼인성소 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11강남지구 성령기도회 / 문의: 010-9519-1608
때: 매주(금) 19시~21시45분 / 강의·축복기도
곳: 역삼동성당 경환당(주차 가능) / 이상기

낙대 후 화해 피정(착한목자수녀회)
때, 곳: 5월 16일(금)~18일(주일), 6월 20일(금)~22일(주일) 2박3일, 성 안드레아 피정의 집(인천)
회비 없음 / 문의: 010-6637-1366 번 바울라 수녀

성체현시와 성모송 천 번 기도회
때: 4월 21일(월) 12시30분~17시
곳: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 사랑의성령봉사회

성모송천수도회 십자가 도보 성지순례
때: 5월 17일(토), 갑곶순교성지 외 3곳(인천교구)
출발: 7시30분, 전철 2·4호선 사당역 공영주차장
문의: 010-3080-9104 / 사진 접수 필수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4월 25일~28일·5월 16일~19일·6월 20일~23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본당별 출장피정 신청 가능 / 문의: 010-9363-7784

서울대교구 성령새신봉사회 금요철야기도회
강사: 김성대 신부 / 문의: 010-3242-6868
때, 곳: 4월 25일(금) 18시~22시(미사 21시),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500·504·651 환승, 천주교성령봉사회관 하차 / 울동, 찬양, 고해성사

지리산 피아골·성지순례 / 문의: 010-3712-8119

피아골 피정	6월 20일~21일, 7월 18일~19일
전주·광주	4월 29일~5월 1일 대구교구 5월 22일~23일
홍성산 신부와 고도·나가사키	6월 16일~20일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137차	5월 16일(금)~24일(토)	문의: (061)373-3001, 010-6216-5346
제138차	6월 13일(금)~21일(토)	
제139차	7월 11일(금)~19일(토)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곳: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주최)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6월 28일(토)~29일(주일), 8월 30일(토)~31일(주일)
2박3일	5월 4일(주일)~6일(화), 6월 23일(월)~25일(수)
3박4일	6월 5일(목)~8일(주일), 7월 3일(목)~6일(주일)
8박9일	4월 23일(수)~5월 1일(목), 5월 14일(수)~22일(목)
40일	10월 14일(화)~11월 22일(토)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성지순례(크로아티아·메주그리예)	4월 27일~5월 9일(12박13일)
개방의 날	매월 첫번째(금) 5월 2일 10시~15시30분
사도행전과 함께하는 대침묵 피정	5월 9일~11일(2박3일)
토요성모신심 기도와 미사	5월 17일 10시~12시
다네이영성수련(대침묵)	6월 27일~29일(2박3일)
단체 피정(자제·위탁) / 개인 피정 가능	

멈춤, 그리고 침·도심 속 침묵 피정

내용: 일상을 멈추고 온전한 침 안에서 하느님 만나기
때, 곳: 5월 17일(토) 11시~18일(주일) 11시, 노들담 서울 교육관(종로구 북촌로 54) / 5월 8일까지 접수
1인 1실 / 문의(접수): 02)2135-9398 한국CLC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부활맞이 엠마오 성지순례

때: 4월 21일(월) 오전 8시 출발(명동 가톨릭회관)
곳: 명애목 성지 / 내용: 고해성사, 미사, 성체조배
회비: 5만원 /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계좌: 국민 794001-04-122952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2025년 성령새신 전국대회

문의: 02)777-3211
강사: 어거스틴 문다캣 신부(인도, 말씀과 치유 은사)
미사: 손희송 주교, 전국교구담당 및 협력사제단
때, 곳: 4월 26일(토) 9시~17시30분, 음성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 대상: 모든 교우
주최: 한국가톨릭성령새신봉사회협의회

'푸른꿈 제주섬' 이야기-제주 피정

강우일 주교와 함께하는 순례(성지·자연, 섬, 말씀초대)
대상: 개인, 가족, 단체, 본당(사목위원·구반장)
때: 5월 21일~23일·6월 9일~11일·9월 18일~21일
곳: 제주 성 이시돌 피정의 집(한국통합사목센터·주최)
문의: 010-9670-9775, 010-7200-4567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성무일도·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때: 생태순례 5월 10일~12일·5월 20일~22일·6월 15일~17일(주차도 포함)·6월 20일~22일·9월 15일~17일·10월 10일~12일, 추자도포함 성지순례 5월 26일~29일·6월 1일~4일, 우도섬 포함 여름 피정 7월 19일~21일·7월 31일~8월 3일·8월 8일~10일·8월 14일~17일·8월 23일~25일 / 문의: 064)756-6009, 02)773-1463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5월 9일~11일·5월 13일~15일·5월 17일~20일(추자도)·5월 21일~23일(성모의방 포함)·5월 24일~26일·6월 2일~4일·6월 6일~8일·6월 12일~14일·6월 21일~23일(추)·7월 1일~4일(추)·7월 12일~14일(우도섬 포함)·7월 18일~20일·7월 22일~24일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교육

스테인드글라스 교육 회원 모집(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성가발성 노래교실

문의: 010-9842-8818
"다함께 성가를 TV" 이호중 교수 직장
곳: 시스피나 음악원(주최, 신촌)

음악심리 상담사 자격 초급반

때, 곳: 5월 14일~28일 매주(수) 13시30분~16시30분,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 회비: 15만원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사이버성경학교 '희년' 이벤트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이
접수: 인터넷 검색창 '사이버성경학교' / 365일 신청
전과목 50% 할인, 다양한 무료 콘텐츠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다종이인형연구회원 모집

문의: 02)727-2471 한국여성생활연구원

서강대학교 '거룩한 만남의 순간들'

주제: 전례를 통한 신앙 체험 II
강사: 구정모 신부(예수회) / 문의: 02)705-4711
때: 4월 21일(월) 14시~16시(강의·미사)
곳: 서강대학교 이나시오 소강당 / 회비 없음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신입생 모집(2025년 후기)

모집전공: 생명윤리학(임상연구윤리학), 생명문화학 석사과정 / 입학전형: 6월 2일(월) 14시
원서접수: 5월 7일(수)~19일(월) 17시
문의: 02)3147-8156 대학원교학팀, 02)3147-8664 조교

학교 밖 청소년 및 자원봉사자 모집

모집 대상: 학교 밖 청소년(14세~24세) / 수업내용: 검정고시·수능준비, 진로탐색·자격증 취득(요리·제과·사진·바리스타·포토샵 등), 자기계발(기타·원어민 영어회화·토론·글쓰기·필라테스·일본어·보컬·작곡 등)
검정고시·수능지도 봉사자 수시 모집 중(1365 홈페이지 참조) / 문의: 02)382-5652 청소년문화공간JU

유럽에 가야하는 EU 해외탐방

내용: 서유럽 여행 속 국가별 역사 및 문화이해를 통한 청소년 국제교류 캠프 활동
때: 7월 20일(주일)~28일(월) 총 9일간
참가대상: 11세~19세 청소년 30명 / 회비: 1인 585만원
접수: boramyc.or.kr 접수 후 '프로그램 안내' 게시글 확인 및 구글폼 제출 / 문의: 02)834-7233, 4 서울대교구 (제)서울가톨릭청소년회 보라매청소년센터

가톨릭신앙아카데미 42기 모집

대상: 방송, 신문, 출판, 홍보, 광고, 뉴미디어 등 미디어 종사자(1975년 이후 출생)
때, 곳: 5월 20일~7월 22일 매주(화) 19시20분부터 약 2시간(주말 피정 포함 총10회), 서울대교구청 본관 501호
회비: 20만원(개근·정근 시 소정의 폐이백 장학금 지급)
성경, 사회교리, 가톨릭문화, 미디어윤리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 / 수료시, 교구장님 명의 수료증 부여
문의: 이메일(ca_sinang_ac@naver.com), 010-5294-6207 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영성학교

강사: 양승국 신부, 최황진 신부, 김연범 신부, 전삼용 신부, 송봉모 신부, 박효철 신부, 김현우 신부, 김재덕 신부, 김성대 신부, 박현민 신부, 이창진 신부,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 파견미사: 주교 집전
때: 4월 22일·29일·5월 13일·20일·27일(화) 12시30분~17시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0505-091-0523, 02)777-1773
2025년 영성학교: 4월~7월·9월~10월, 매월 시간·장소 동일 / 회비: 월 3만원(완납시 18만원)
계좌: 신협 131-022-652844 가정선교회 / 당일접수 가능

예수회 이나시오 영성연구소 무료 정기강좌

때, 곳: 14시, 예수회센터 성당 / 문의: 02)3276-7799
4월 24일(목) 나르시시즘과 영적 교만 최지원 수녀
5월 22일(목)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송봉모 신부

모집

가톨릭남성합창단 올바우 단원 모집

때, 곳: 매주(월) 19시30분, 성음악아카데미(중림동)
지휘: 성궁용 / 문의: 010-9042-8811

서초동성당 헬름 라이어 모집 / 문의: 010-2779-1714
11월에 모차르트 레퀴엠을 공연할 합창단원(50세 이하)
성가 1곡 오디션 모집(트럼펫·트럼본·첼로 전공자 포함)

재속 맨발 가르멜회 십자가의 성 요한 회원 모집
대상: 만 55세 이하 견진성사 받은 분
첫모임: 6월 9일(월) / 문의: 010-9836-8998

미사

평양교구 신우회 월례미사 / 문의: 02)727-2056
때, 곳: 4월 23일 1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문의: 02)3673-2525
때, 곳: 4월 24일(목) 오전 10시, 사당5동성당

오기선요셉장학회 월례미사

집전: 김정수 신부 외 사제단 / 문의: 010-8982-9819
때, 곳: 4월 24일(목) 오후 3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때, 곳: 4월 25일(금) 14시~16시, 골롬반 선교센터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 문의: 02)929-2977

새천년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미사

미사: 조성풍 담당 신부 / 문의: 02)753-8765
때, 곳: 4월 24일(목) 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절두산순교성지 마리아연교회 미사

내용: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연도 및 미사
때, 곳: 4월 25일(금) 11시30분, 절두산 순교성지

예수성심전교수도회 후원회 미사

때: 4월 25일(금) 11시~14시 / 접수 필수
곳: 예수성심전교수도회 본원
문의: 02)379-8091, 010-6311-8071

안내

낮의 무의식 모래놀이치료(집단상담)

때: 5월 14일~6월 25일 매주(수) 10시~13시(7주) / 문의:
02)726-0700(www.jscen.or.kr) 전진상영성센터(명동)

불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입소어르신 모집

섭리의 집에서 함께 생활할 입소 어르신들을 모집
니다 / 대상: 거동이 가능한 65세 이상 여성 어르신
문의: 02)803-3055, 010-2442-3055 섭리의 집

자비주일 행사(서울대교구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내용: 음악과 함께하는 자비주일(고해성사·미사)
때, 곳: 4월 27일(주일) 13시~16시, 가톨릭회관 7층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살레시오 교육관 대관 안내

세미나, 연수, 피정, 교육 가능 / 문의: 02)828-3522

까리따스 알코올회복센터

알코올의존자 당사자 주·야간 교육, 가족교육 운영
자녀교육: 고통받고 있는 성인자녀를 위한 교육-매주(수) 19시 / 문의: 02)521-2364
회복을 위해 까리따스알코올회복센터와 함께해요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블자비의수녀회)

해외가톨릭사립학교 입학설명회·여름캠프

때: 4월 26일(토) 15시 / 예약필수, 홈페이지 참조
대상: 초3~고1 / 미국·아일랜드(청구·여름캠프)
문의: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주최: 그리스도레지오회 해외학교법인

사별가족 돌봄 프로그램 '사랑굴'(개봉동성당)

대상: 사고사나 돌연사로 사별을 경험한 가족으로
회복의 시기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
때, 곳: 4월 23일~6월 11일 매주(수) 14시~17시(총
8회), 개봉동성당 마리아홀(구로구 개봉로 18길 11)
문의: 010-6735-2325 이수민 수녀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원
치료(도박·인터넷 게임) / 홈페이지: www.karf.co.kr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문의(진료·입원): 031)810-9200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2025년 부활 평화마켓(가톨릭 플라마켓)

청년 작가들이 정성껏 만든 핸드메이드 성물과
다양한 가톨릭 소품을 만날 수 있는 평화마켓
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마켓 수익금의 일부는
청소년들을 위한 기부금으로 사용됩니다
때, 곳: 4월 26일(토) 12시~18시, 청년문화공간 JU(주최,
전철 2호선 홍대입구) 1층 카페 / 문의: 02)338-7832

진애인 심리상담센터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cn.com) 토요일 상담 가능

전문 심리상담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부부, 가족간의 갈등, 대인기피 등 전국민 마음투자 바우처 신청기관
------------	---

유관단체 알림

한민족돕기회 통일가원 미사

주례: 신희준 신부 / 문의: 010-8126-5676
때, 곳: 4월 29일(화) 14시,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101호

부모들을 위한 무료 온라인(Zoom) 특강

주제: 청소년 자녀에게 신앙 환경 만들어주기
강사: 조재연 신부, 천진아 연구원
때: 5월 16일(금) 19시30분~21시30분
5월 12일(월)까지 접수 / 02)744-0840 햇살사목센터

직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여자 어르신 케어 요양보호사 / 문의: 010-7171-9503

개봉동성당 사무장 모집

분야: 사무장 1명(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 가능)
대상: 교리신학원 또는 신학대학 졸업자 / 주요업무:
주 2~3회 가정방문 및 방문 교리를 할 수 있는 분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
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채용시까지 우편(우 08332,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
18길 11) 및 방문 접수 / 문의: 02)2615-8811

서울대교구 쑥고개성당 방호원 모집

분야: 방호원 1명(계약직) / 시설관리·방호·미화
등 전반적인 업무(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된 근면성실한 분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
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자격증 사본 / 문의: 02)873-2333
5월 21일(수)까지 방문·우편(우 08785, 서울시 관악구
쑥고개로 79) 및 이메일(uld@seoul.catholic.kr) 접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해당자 개별 연락)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 직원 상시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나이제한 없음) / 이메일 문의
업무: 주방 근무(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
운로드·지원 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
서(본당 사무실에 신청) / 이메일(acinsa@seoul.catholic.kr) 접수
본 전형은 접수 마감시한이 따로 없는 연내 상시
접수이며, 채용계획이 있을 시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 전형 진행 / 합격자 발표: 서류 합격(면접일정
통보), 면접 합격은 대상자에 한해서만 개별 연락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 문의: 02)6365-1829

서류: 입사지원서(홈페이지-본사양식)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www.catholicbook.kr) 직원
모집 메뉴 반드시 참조 / 이메일(cphhr@catholic.or.kr) 접수

모집 분야	담당 업무
편집국	전문 편집
경영관리국	재무회계
CRM사업국	매장 판매 및 관리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돈보스코여자재속회(VDB)	수시	영등포구 신길6동 여의대방로65	0507-1306-1505 / 카가오채널
미리내 천주 성삼 성지 수도회	수시 / 전화 상담 후 결정	본원	010-5195-3217 성소부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개별적 협의	수녀원(미아동)	010-5604-1882
성모 자헌 애덕의 도미니코 수녀회	4월 27일(주일) 14시	수녀원(부천)	010-5166-1275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서울관구)	4월 27일(주일) 10시~15시	서울관구 본원(전철 2·4호선 사당역 1번 출구)	010-7542-7845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2)749-4596, 010-2749-4596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수녀회	수시	가톨릭회관 516호	010-3068-0325 서울, 010-2969-5119 부산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게재된
시간 검색

cpbc플러스 다운로드

cpbc TV 2025 부활 개편



cpbc TV가 2025년 부활 개편을 단행한다. 먼저, 많은 교우분에게 사랑받고 있는 '매일미사' 후 바로 '영성의 시간'과 '성경의 시간'이 편성되었다. 기도과 전례, 묵상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은 시청자들의 수요에 맞춰 두 프로그램이 평소보다 10분 일찍 시청자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 부활 개편에서는 신규 제작된 다양한 신앙 체험 프로그램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일상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며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신앙 다큐 '내가 만난 하느님', 청년들이 5개의 수도회를 체험하고 그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담은 '수도원에서 나를 찾다 YOU세미나',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순간에 대한 토크 프로그램, '응답하라 부르심에 시즌2', 원로 사목자들의 삶과 신앙 이야기를 청해 듣는 시간 '님 따라 한평생 시즌2' 등의 프로그램들이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전한다.

한편, 새롭게 선보이는 수준 높은 해외 프로그램들도 눈에 띈다. 스페인 공영방송사 RTVE가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산티아고 순례길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하늘과 땅 사이, 산티아고 순례길', 성 베네딕토와 성 그레고리오를 비롯한 성인 8명의 삶과 신앙을 소개하는 다큐 '성덕의 향기',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의 위대한 작품들을 비롯해 바티칸 박물관에 소장된 작품들을 소개하는 '바티칸의 예술품들'을 통해 해외의 가톨릭 문화와 풍경을 즐기는 재미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함께 기도하는 밤

더 자세한 내용은
큐알(QR) 스캔

[5월 이벤트 안내]

- 성체조배: 5월 1일(목) 19시40분, 주교좌 명동대성당
- 이벤트 응모 기간: 5월 8일(목)까지 / 이메일(thursnight@catholic.kr) 응모

- [시상] 함께상: 인증샷 일러스트 엽서 10매, 도서 《함께 기도하는 밤》 2권
- 기도상: 도서 《함께 기도하는 밤》(가톨릭출판사, 이영제 신부 지음) 2권



매일 첫 목요일 밤을 가장 특별하게 보내는 방법! '교구장님과 함께하는 성체조배'에 교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짝꿍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어루만지는 밤을 보내보세요. 그 어느 때보다도 총만해지는 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을 기록하고 나누어주세요! 짝꿍과 함께 찍은 인증샷과 느낀 점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매일 추첨을 통해 정성이 담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특pecially 성모 성월이며 가정의 달인 5월, 사랑하는 가족들 손을 잡고 명동으로 오시는 건 어떨까요? 성체조배를 함께하며 부활의 기쁨을 나눠보세요. 우리, 첫 목요일에 만나요!

YouTube

가톨릭튜브

유튜브 검색창에 '가톨릭튜브'를 검색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큐알(QR) 스캔

✓ 샌드아트로 만나는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감동을 샌드아트 영상으로 만나 보세요. 따뜻한 내레이션과 더불어 빛과 모래가 그려내는 거룩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튜브에서 '가톨릭튜브'를 검색해 보세요.)



(코너 1) 샌드아트로 만나는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



✓ 사제관 옆 영화관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마음 따뜻해지는 영화들을 신부님이 하나하나 손수 골라주는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깊이 있는 해석과 따뜻한 감동을 동시에 챙겨보세요!



(코너2) 사제관 옆 영화관

◎ 명동대성당 청년전례단 '쉐마' 단원 모집

- 주요활동 : 주일 오후 7시 청년미사 전례봉사
- 대상 : 천주교 청년신자(93년~06년생)
- 마감 : 4/27(일)까지
- 지원방법 : 홈페이지→성당소식→단체모집 공지 참조
(입단신청서 및 교적증명서 제출)
- 문의 : mdshema@naver.com

※자세한 일정은 지원자에게 추후 개별 공지합니다.

◎ 명동대성당 로고스합창단 단원 모집

- 활동 : 주일 오후 4시 미사 및 대축일 미사 등
- 대상 : 성음악에 관심 있는 20~40대 남녀 가톨릭 신자
- 오디션 : 2025/5/18(일) 오후 5시
- ※지원방법은 본당 홈페이지(PC버전)→단체모집 게시판 또는 로고스합창단 홈페이지(www.logoschoir.org) 참조

◎ 청소년 주일학교 봉사자 모집

- 26년도 초고등 학생들의 신앙생활을 증진시키고 교리교육을 담당하는 주일학교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 견진성사를 받은 만19세~29세 가톨릭 신자
- 주요활동 : 청소년 교리교육 및 학생들과 함께 하는 미사 봉헌
- 모집기간 : 4월 20일(주일) ~ 5월 25일(주일)
- 문의 : 본당 사무실
- ※구비서류와 유의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글 참고!

◎ 아미쿠스 주일학교 남자교사 모집

- 아미쿠스 주일학교는 미사를 참례하고자 하는 발달 장애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주일학교입니다.
- ※남자교사가 부족하여 추가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 세례성사를 받은 만 20세~만 40세 가톨릭 신자
- 주요활동 : 주일 오전 10시 아미쿠스 주일학교와 함께 하는 미사, 미사 후 교리 등
- 문의 : mdsd.amicus@gmail.com (※메일로 연락 요망)

◎ 명동대성당 미사안내봉사단 단원 모집

- 봉사시간 : 토요일 오후 6시 미사, 주일 오후 6시 미사
- 자격조건 : 가톨릭에서 세례 받으신 신자
- 제출서류 : 입단 신청서, 교적증명서
- 문의 : ☎ 010-5894-9943 (문자)
- 이메일(samlomsoo@gmail.com)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성당소식→단체모집 참고

◎ 명동대성당 장년봉사부와 봉사 회원 모집

- 모집조건 -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은 만 45세~65세 남성 교우
명동성당 행사 및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분
- 제출서류 - 교적증명서 <밀봉 요망>
- 중현회 : 매월 둘째주 일요일 오후 5시 화합 ☎ 010-2838-6401
- 대건회 : 매월 1회 비정규일 화합 ☎ 010-9011-8990
- 범우회 : 매월 둘째주 목요일 오후 7시 화합 ☎ 010-6340-3528
- 광암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후 5시 화합 ☎ 010-8713-2000
- 하상회 :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 7시 화합 ☎ 010-3687-2322
- 만천회 : 매월 셋째주 수요일 오후 7시 화합 ☎ 010-8611-4097

생미사·연미사 지향 신청 방법 안내

생미사·연미사 지향 신청은 본당 사무실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온라인·전화 신청 및 사무실 대리 신청 불가!). 주교좌 성당이기에 연중 특별한 지향으로 봉헌되는 미사가 종종 발생하고, 어느 본당보다 신청자가 많아 신청 마감 시간이 있습니다.

요일별 마감 시간 이후부터는 다음 날 오후 미사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원하시는 날짜 사흘 전까지 방문하시면 마감 시간에 국한되지 않고 여유롭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아래 내용 숙지하시어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사무실 방문 신청

- 화~금요일 : 오후 4시에
당일 오후 6시·7시 미사 ~ 다음 날 오전 7시·10시 미사까지 접수 마감
- 토요일 : 오후 4시에
당일 오후 6시·7시 미사 ~ 일요일 오전 7시·9시·10시·11시 미사까지 접수 마감
- 일요일 : 오후 2시에
당일 오후 미사 ~ 월요일 오전·오후 미사 & 화요일 오전 7시·10시 미사까지 접수 마감
☞ 월요일은 성당 사무실이 휴무이므로 월요일 오전과 오후 미사 모두 오후 2시에 함께 마감됩니다.

❖ 법정 공휴일 미사 신청

법정 공휴일(설 연휴·삼일절·선거일·어린이날·부처님 오신 날·현충일·추석 연휴·개천절·한글날)과 근로자의 날은 성당 사무실 휴무입니다. **휴무일 전후로는 사무실 방문 신청 마감 시간이 평시와 다를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어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무 기간 중 일요일과 1월 1일, 8월 15일, 12월 25일은 정상근무합니다.)

❖ 대성전 현장 신청

- 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6시 미사, 화~토요일 오전 10시 미사에 한해 현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대성전 입구에 비치된 미사예물 봉투를 작성하시고 예물을 담아 제대 앞에 놓인 생미사함(연미사함)에 **미사 시작 10분 전까지 제출**하십시오. 미사 전 수거하여 사무실에서 미리 접수된 지향자 명단과 함께 신부님께서 추가로 호명해 주실 것입니다.
- ☞ 지향자가 가톨릭 신자이면 '성(姓)+세례명'으로 호명되고, 비신자일 경우 '성명(姓名)'으로 호명됩니다.

❖ 신청 불가한 미사

- 주일 및 의무 축일 낮 12시 교중미사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 매월 마지막 목요일 오후 7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미사
- 평일미사가 사제 또는 교우의 장례미사로 봉헌될 때
- 평일미사가 교구로부터 하달된 특별한 지향으로 봉헌될 때

❖ 연미사 신청만 가능한 미사

- 매년 명절(설·한식·한가위)과 위령의 날(11월 2일) 봉헌되는 모든 미사는 '합동 위령미사'로만 봉헌되어 생미사 신청은 불가하고, 지향자 호명은 하지 않습니다.



774-1784(☎)
753-1784(FAX)
본당 연방회
010-6375-1784

진주교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성 풍(아우구스티노) 신부
수석부주임 나 창식(안드레아) 신부
청년·문화예술 나연수(안토니오) 신부
선교·교육 문재현(바오로) 신부
전례·성음악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신부
장애인신앙교육 이승규(토마스아퀴나스) 신부
외국인전담사목 세베로 이사악(이사악) 신부

미사 성가 | 입당 : 135 | 봉헌 : 132, 129, 131 | 성체 : 128, 130, 133 | 파견 : 13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우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 부활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본당 사제단, 수도자, 사목협의회 일동 -

◎ 5월 예비신자 교리반

교리반	시 간	장 소	강 사
토요반	오후 4:00	교구청 본관 401호	오 헬레나 수녀

- 6개월 과정으로 매주 2시간 수업, 미사 참례 필수
- 환영식 : 5/4(일) 오후 2시 교구청본관 501호
- 첫 수업 : 5/10(토) 16:00
- 전화·사전 신청 불가
- 준비물 : 교재비 2만원, 반명함판 사진 1매

◎ 미얀마 지진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2차 헌금

오늘은 미얀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슬픔에 젖어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2025년 명동보름장 개장

·기간 : 4월~11월 (첫째·셋째 주일) 10:00~16:00
·장소 : 명동대성당 들머리 입구, 가톨릭회관 앞마당 일대
※명동보름장은 천주교서울대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 본부에서 운영하는 직거래장터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바구니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 상설 고해성사 재개

4월 20일(주일)부터 상설 고해성사를 재개합니다.
단, 4월 21일(월)은 성직자·수도자를 위한 고해성사는 없음.
(☞ 고해성사 요일과 시간은 '주보 하단 표' 참고)

◎ 2025년 상반기 견진성사 신청

·견진성사 : 6월 8일(주일) 오후 2시 / 대성전
·교리시간 : 4월 27일 ~ 6월 1일 (매 주일) 5주간
(☞ 5월 4일 휴강)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 대면 수업
★★ 오후 1시 40분까지만 출석으로 인정,
5주 모두 참석 시 견진성사 가능 ★★
·신청대상 : 가톨릭에서 세례성사를 받고 첫영성체를 한
20세 이상 교우 (단 세례성사를 받고 3개월이 지난
교우부터 신청 가능)☞2025년 1월 세례자까지
·교리장소 : 포스트홀
·신청방법 : 4월 20일(주일)까지 본당 사무실 방문 접수
※구비서류와 유의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글 참고!

◎ 2025년도 레지오 마리아 아치에스 행사

·일시/장소 : 4월 27일(주일) 오후 1시 30분 / 대성전
·집결지 : 낮 12시 30분까지 성모동산 집결 후 이동
·대 상 : 명동 레지오 마리아에 전 단원
·준비물 : 목주, 각 Pr. 단기 지참

◎ 4월 세례자 감사예물

지난 주일 세례성사를 받으신 분들께서 감사예물로 2,506,000원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4/7-4/13).....31,881,000
· 주님 수난 성지 주일 헌금.....37,503,279
· 사순절 이웃돕기 특별 헌금.....17,937,000
· 감사헌금 (4/7-4/13).....1,737,000
강 디모테오 / 김 라파엘 / 김 모세 / 김 바오로 / 김 유스티나
박 미카엘라 / 서 세실리아 / 심 알베르토 / 심 에메렌시아나
이 사라 / 이 아델라 / 이 요셉 / 임 사무엘 / 장 프란체스카
최 로사리아 / 최 안나 / 익명(1)

미사 (Mass)	주일미사 (일요일)	07:00, 09:00(English Mass), 10:00(아미쿠스 주일학교와 함께하는 미사), 11:00, 12:00(교중미사), 16:00, 17:00, 18:00, 19:00(청년미사), 21:00		유아 세례 (Baptism of Infants)			주일헌금 봉헌 QR 코드	
				매월 첫째 주일 13:30 ※직전 금요일까지 접수				
				고해성사 (Confession)				
	주일미사 (토요일)	18:00, 19:00(3545+ 청년미사)		토-일	10:00 - 20:00	화-금		11:00 - 20:00
				월	13:00 - 17:00 (성직자 · 수도자 대상) ※일반신자는 다른 요일을 이용하십시오.			
	평일미사	월	07:00, 18:00	외국인을 위한 고해성사 (Confession for Internationals)				
		화-금	07:00, 18:00, 19:00					
		토	07:00					
성지미사	월-토	10:00	Sun.	08:30 - 08:50				
※모든 미사는 ‘대성당’에서 봉헌합니다.			Sat.	16:00 - 17:00				

※모든 미사는 '대성당'에서 봉헌합니다.

【 1% 행복발견 】 일상 안에서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행복 발견하기'
슬플 때 위로해 주는 가족과 친구, 지인이 있기에 행복합니다.